

에이즈 확산 빈부 양극화 뚜렷 아프리카선 사망원인 1위 선진국 희생자 급감

에이즈(AIDS)의 확산 및 예방에도 선·후진 국간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 지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가 말라리아를 제치고 최대 사망 원인으로 부상한 반면 유럽의 에이즈 사망자는 95년에 비해 8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에이즈 퇴치운동 전담기관인 유엔 에이즈계획(UNAIDS)이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리카 지역의 에이즈 사망자는 전세계 에이즈 사망자의 80%가 넘는 2백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아프리카 전체의 사망자 1천만명 중 5분의 1이 에이즈에 의해 죽은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는 이제 보건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는 무려 8백30만명이나 된다.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 짐바브웨의 경우, 현재 61세인 평균수명이 2010년에는 39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짐바브웨의 기업들은 높은 에이즈 사망률을 고려해 고용 예정 직원 1명당 7명의 수련생을 두고 있다. 짐바브웨에서는 지난해 교원 300명을 양성해 냈지만 이 기간에 에이즈로 사망한 교원은 600명에 이른다. 에이즈가 아프리카의 경제기반과 사회조직을 흔들 지경에 이른 것이다.

반면 돈 많고 약 좋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최근 들어 에이즈 희생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약제들의 조합으로 에이즈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른바 「에이즈 칩테일」, 그리고 산모의 에이즈바이러스가 태아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신약 AZT 등의 덕택이다. 미국의 경우, 92년에서 97년 사이에 태아의 HIV

감염률은 17%로 폭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HIV에 감염돼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는 3분의 2가 줄어 들었다.

문제는 「에이즈 칩테일」의 경우 매달 600달러, AZT는 5개월간 1,000달러 등 약값이 엄청나다. 연간 1인당 평균 의료비가 6달러에 불과한 아프리카 국가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액수다.

최근 아프리카의 과학자들은 AZT보다 효용적이면서도 훨씬 값싼(약 4달러) 태아 감염 예방제 「네비라핀」을 개발해냈다. 또 남아공은 값싼 국내산 「에이즈 칩테일」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글락소 등 선진국의 40개 제약기업들이 남아공 정부 등을 상대로 지적 소유권 침해 소송을 제기, 아프리카인들의 자발적인 에이즈 퇴치 노력은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세계화나 눈부신 기술 발전이 가난한 제3세계의 민중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경향신문 1999/08/12)



우유 먹으면 AIDS 등 성병 예방

우유 유지방에 에이즈바이러스, 임질, 포진, 클라미디아 등 성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BBC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아이슬란드 대학의 할도르 토마르 박사는 우유 유지방과 코코넛기름 속에 들어 있는 '모노카프린' 성분을 쥘 상태로 녹인 뒤, HIV 및 포진 바이러스, 임질균을 집어넣으면 1분 안에 병균이 파괴된다고 발표했다. 여성 불임, 어린이 폐렴 등을 유발하는 클라미디아균도 5분 안에 파괴됐다. 모노카프린은 또 정자의 운동을 정지시키고, 정액 속에 들어있는 백혈구를 10% 줄였다. 정액 속의 백혈구는 에이즈 전염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조선일보 1999/07/05)

동성애 비하 교과서 헌법소원

동성애자 단체가 교육부 발행 고교 교과서에 묘사된 동성애자 비하 내용에 반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는 지난 7월 7일 현행 고교 윤리교과서와 교련교과서 등에 묘사된 10여건의 동성애자 관련 내용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자들에 대해 편견과 혐오감을 심어준다고 7월 중순 내용삭제를 요구하는 행정처분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발행한 고교 윤리교과서에 '에이즈 동성연애 매춘 성폭행 마약 음란비디오 저질만화 등이 늘어나면서 성도덕의 문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에서 동성연애를 포함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동성애는 자신과 같은 성에 대해서만 성적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고교 교련(교육부 발행) 2책68쪽도 동성애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포지인 임태훈씨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정신의학계에서는 동성애자를 더 이상 질병

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교육부는 이런 세계적 흐름을 무시한 채 성병의 원인제공 행위나 정신병적 증상으로 묘사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1999/07/07)

중대륙 에이즈 급속확산...내년 100만명이상 감염

중국 대륙에서도 에이즈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중국내 에이즈 감염자수는 지난해 말 1만 2,639명으로 공식 집계됐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3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분회보는 베이징(北京) 의학전문가들의 보고를 인용해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전하면서 8,000만~1억2,000만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유능인구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위생부는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에 대해 마약과 불결한 성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집계된 1만2,000여명의 감염자 가운데 3분의 2가 마약흡입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독되지 않은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당국은 에이즈 감염자 증가율을 연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에이즈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1999/07/11)

신생아 HIV 감염방지 신약 개발

에이즈바이러스인 HIV가 모체에서 신생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새로운 약이 개발됐다. 미국 알테르기 및 연병연구소(NIAID)는 14일 우간다와 2년간의 공동연구 끝에 네비라피린

(Nevirapine)이라는 신약을 개발했으며 이 약은 신생아의 HIV 감염을 차단하는데 기존의 에이즈 치료약인 AZT보다 47%나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발표했다.

이 약은 한번 투여하는데 기존의 AZT보다 훨씬 저렴한 4달러에 지나지 않아 연간 40만명의 신생아를 HIV 감염에서 구하게 될 것이라고 NIAID는 예상했다. (경향신문 1999/07/15)

HIV 내성 요인 발견

특정인들이 에이즈바이러스(HIV)에 대한 내성이 특히 강한 이유가 스페인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스페인의 국립 생물공학센터 과학자들은 HIV가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분자들이 어떻게 배합하는가를 밝혀내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에 발표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지난 7월 18일 보도했다.

스페인 과학자들은 수용체 분자의 돌연변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HIV에 좀 더 오래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돌연변이인 CCR2 수용체가 문을 잠그는 열쇠처럼 작용해 HIV가 건강한 세포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품이 생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더욱 많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999/07/19)

아프리카 에이즈 사망 분쟁의 생 능가

지난해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에서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140만명으로, 지역 분쟁으로 사망한 수를 능가했다고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지난 7월 22일 밝혔다.

또 에이즈 피해는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아프리카가 가장 심해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의 수가 동남아프리카에서 600만명에 달

한다고 스티븐 루이스 UNICEF 사무차장이 말했다. 루이스 사무차장은 에이즈에 관한 연례 UNICEF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 에이즈 환자의 48%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참상이 "탄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과도 같다"고 비유했다.

지난해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들은 59만명이며 그중 53만명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다. 또 에이즈로 사망한 1천400만명중 1천100만명이 아프리카 주민이었으며 그중 4분의 1이 바로 아이들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100명중 9명 꼴이며 여성과 아동들이 더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루이스 사무차장은 주된 채권국인 서방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에이즈 확산 방지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발칸 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코소보의 경제적 재건을 위해서 400억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 정작 그 액수의 1%도 채 안 되는 돈만으로도 수천만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도덕적 불감증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1999/07/23)

남아공 '처녀성' 검사 부활-에이즈 감염 확인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십년 전에 사라졌던 '처녀성 검사'가 최근 다시 성행하고 있다. 가장 성행하고 있는 곳은 남아프리카 동부 줄루족 거주지인 콰줄루 나탈지역.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 소녀 35%가 처녀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파카티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웅고베스 여사는 검사를 받으러 오는 여성중 절반 가량이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성병 감염자들이라고 말했다. 검사결과 '처녀'임이 확인되면 증명서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에이즈 감염우려가 높다고 보고 의뢰기관으

로 가도록 권유를 받는다.

그러나 여권단체나 아동권익 보호단체 등은 처녀성 검사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 처녀와 비처녀를 구분함으로써 강간의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도 있다. 처녀와 성관계를 할 경우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미신이 만연돼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999/08/24)

미국 에이즈 사망자 감소세 둔화

미국은 강력한 신약 덕분에 에이즈 사망자가 지난 97년 40% 이상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사망자 감소세가 들쭉 반감됐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8월 30일 밝혔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CDC는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HIV예방대회에서 지난해 미국의 에이즈 사망자는 1만7천47명으로 97년의 2만1천222명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에이즈 사망자는 지난 95년 1만9천351명에서 96년 3만6천792명으로 25% 줄었고 97년에는 사망자 감소율이 42%까지 올라갔으나 98년에는 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CDC의 엘렌 게일 HIV국장은 "당초 예견했던 대로 사망자 감소세 둔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새 치료제들 덕분에 연간 사망자 수가 불과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이제 새 치료제들의 혜택은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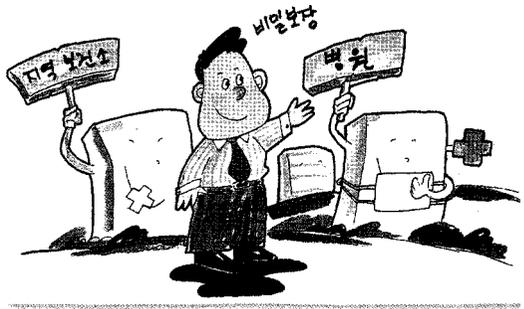
게일 국장은 앞으로도 사망자가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HIV 보유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 환자는 치료제에 대한 저항력 때문에 치료가 실패로 돌아간 것 등을 꼽았다.

CDC는 이와 함께 98년의 에이즈 신규 환자는 4만4천289명으로 97년의 4만9천667명에 비

해 11% 줄었다고 밝혔다. 인종별로는 흑인의 사망률이 가장 높아 흑인은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면서도 지난해 에이즈 사망자의 49%가 흑인이었고 백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32%와 18%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1999/08/31)

AIDS 감염자 보고 때 인적사항 삭제

의사나 의료기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를 발견한후 보건소 등에 보고할 때 앞으로는 감염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신원공개에 염려가 없어져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자발적인 검진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 중 의료기관의 신고사항에서 "감염자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등을 삭제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나 의료기관은 그동안 AIDS 감염자를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했던 감염자의 인적사항을 앞으로는 빼도 된다.

이덕형 질병관리과장은 "AIDS 감염자의 신원이 부주의로 공개됐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며 "감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A

(한국경제신문 1999/08/31)